

“李 대통령, 국민 이기려 해선 안돼”

윤건영 “여론 악화 핵심 신뢰 붕괴”
공소취소 등 대통령 직접 해명해야



윤건영 의원

윤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히 그러하다”며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선 ‘너무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떠난 마음을 조금

이라도 돌릴 수 있다. 정책 운용의 잘못이라면, 다시금 이해를 구하고 정책 전환을 통해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하지만 신뢰 기반의 붕괴라면, 새출발의 동력 자체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다음으로 대통령의 진심을 꾸미거나, 손뼉 생각을 버려야 한다.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을 듯”하다 “국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대통령의 언어로 진심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이 대통령께서 국민을 이기려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한병도 “대학 기부금 수도권 독식” SKY 기부금 지방 118곳 합계 넘어



한병도 의원

한양대(928억원)가 뒤를 이었다. 상위 5개교 가운데 울산대를 제외한 4곳이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근 5년간 연세대·서울대·고려대 3개 대학이 받은 기부금이 비수도권 118개 대학 전체가 받은 기부금보다 많았다”고 공개했다.

한 의원은 이날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국·공·사립 4년제 대학 191개교 기부금 규모는 △연세대 3,656억원 △서울대 3,503억원 △고려대 3,36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SKY’ 3개교가 받은 기부금은 1조 519억원으로 전체의 32.5%에 달했으며, 이는 비수도권 118개 대학이 5년간 받은 기부금을 모두 합한 9,690억원보다 829억원 많은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대학 기부금 총액은 3조 2,396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소재 대학이 70.1%(2조 2,707억원)를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 118개교는 29.9%(9,690억원)에 불과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인천을 제외한 서울 소재 42개교가 59.2%(1조 9,180억원)로 전체 기부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서울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전국 대학의 38%에 불과한 수도권 73개교가 기부금의 70%를 가져간 셈이다.

사립대별로 살펴보면 연세대가 3,6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3,360억원), 성균관대(1,159억원), 울산대(1,071억원),

국·공립대의 경우 △서울대(3,503억원) △인천대(844억원) △강원대(386억원) △전남대(347억원) △충남대(316억원) 순으로, 2위 인천대의 기부금은 1위인 서울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부금 하위권은 지방 소재 소규모 대학이 차지했다. 경북 대구예술대가 5년간 1억 4,281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경북 경주대(2억 2,379만원), 충남 금강대(2억 3,325만원), 충남 공주교육대(3억 603만원), 제주 제주국제대(3억 6,073만원) 순이었다. 최상위 연세대와 최하위 대구예술대의 격차는 2,560배에 달한다.

기업 기부금 역시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사립대 기업 기부금 1조 41억원 가운데 68%(6,798억원)가 서울 소재 대학에 몰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기부에서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한 의원은 “지역별 격차가 소득과 일자리를 넘어 대학 기부금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지방 대학의 자체 재정 확보 역량이 취약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2026년 화랑훈련 세미나

1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화랑훈련 세미나’에 이원택지사를 비롯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 참석자들이 내달 실시되는 화랑훈련의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도, 화랑훈련 앞두고 통합방위태세 점검

민·관·군·경·소방 180여명 세미나
테러 대응·핵 낙탄 대응 등 토의

전북도가 10월 실시되는 2026년 화랑훈련을 앞두고 민·관·군·경·소방의 통합방위 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통합방위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화랑훈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랑훈련은 후방지역의 전·평시 군사작전 수행절차를 숙달하고 민·관·군·경·소방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

해 2년 주기로 실시되는 군 주관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오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도와 시·군 통합방위 및 화랑훈련 담당자를 비롯해 제2작전사령부, 제35보병사단, 전북경찰청, 소방본부, 해양경찰서, 국가중요시설 관계자 등이 참여해 화랑훈련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세미나에서는 제2작전사령부가 화랑훈련 통제 및 평가계획을 발표하고 제35보병사단이 훈련 지침과 일정별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중요시설 테러 발생 시 상호조치와 군산항 핵 낙탄

시 지자체 주도의 사후관리 방안 등을 놓고 관계기관별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토의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간 협조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실제 훈련 과정에서 각 기관이 맡은 역할과 대응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오택립 도 실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어떠한 위협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방위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염영선 “시군 공무원 결원 심화…연내 충원해야”



염영선 위원장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위원장(정읍2)이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군의 지속적인 공무원 결원에 따른 행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 지방공무원 추가 채용 가능성과 신규공무원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만숙 자치행정국장, 신원식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 연맹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염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도내 시군은 지속적인 인력 이탈과 결원 누적으로 행정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26년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기준 시군의 채용

예정 인원만 167명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군에서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추가 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전북도는 예산 확보와 시험 일정 포화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추가 채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염 위원장은 “시군 공무원의 전북도 전입 등으로 인해 시군의 행정인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토목·건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직류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공무원 조직의 인력 문제를 넘어 결국 주민들이 제공받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정철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미수납·불용액 줄여 효율 높여야”

환경·농생명·새만금 결산심사
미수납액 적극 징수 촉구
불용·이월액 최소화 강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결산심사 3일차인 14일 환경산림국, 농생명축산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세입 과목별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세출 사업별 불용액 최소화 노력을 통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생활환경과의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을 물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징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비 미송금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문제를 지적하

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노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2)은 물통합관리과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를 질의하며, 특히 하수관로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해당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과 연동된 만큼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을 주문했다.



이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물통합관리과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 예측을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장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기후대응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정복 의원



윤수봉 의원



나중대 의원

가금 조성에 비해 사용 실적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며,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 기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탄소중립정책과에 정리보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식품산업과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 사업이 지방비 미배정으로 국비 반납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중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스마트농산과의 과다한 미수납액의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미수납 문제를 지적하며 체납 징수 활동 등 적극 행정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유송열 의원

유송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스마트농산과의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지원 집행잔액 과다를 점검하며, 국비 미송금으로 인한 것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잔액 발생 최소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수 위원장

마지막으로 한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은 모든 시·군과 연계된 사업이므로 기후예산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새만금 기반 ‘그린수소’ 육성 속도

현대차 투자 연계 전주기 확장
수요처 발굴·연관기업 유치 추진

전북도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위원회를 열고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와 연계한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방안과 5급3특 성장엔진 산업인 그린수소 플랫폼 추진방향 등을 중점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정삼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학계, 연구·공공기관, 기업 등 수소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기반과 기업 투자를 지역 수소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고, 그린수소 생산에서 저장·운송·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수소기업의 참여 확대와 수요처 발굴, 연관산업 육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먼저 현대차 투자와 연계한 전북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방안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현대차의 새만금 사전 투자 계기로 그린수소 생산뿐 아니라 저장·운송·활용 분야로 산업 영역을 넓히고, 관련 투자가 지역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봤다.

특히 도내 수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수소 수요처 발굴, 연관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5급3특 성장엔진산업인 ‘그린수소 플랫폼’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와 앵커기업 투자를 바탕으로 그린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수소모빌리티와 연료전지 등 연관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협력방안을 살펴봤다.

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수소산업 정책에 반영하고,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기업 간 협력 등을 지원해 그린수소 전주기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기반과 기업 투자를 전북 수소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전북 그린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및 수소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자문·심의·조정 등을 수행한다. 2022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됐으며 당연적 2명과 도의원, 대학, 연구·공공기관, 기업 등 위촉직 17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운영된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정읍 장명동 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

주민과 토방청담…지역 현안 논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정읍시 장명동 주민 약 50여명과 함께 장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토방청담(土訪廳談)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장명동 토방청담에서 “오늘의 자리가 정읍시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공유하는 좋은 자리라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토방청담에선 주민들이 직접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정읍시 및 장명동 발전을 위한 구상을 가감없이 건의했다.

주민들은 △구경찰서 부지 매입의 진행사항 및 활용계획, △상동~구룡동간 2차선 확장, △정읍 구룡동 허브원 관광지 활성화 방안 마련, △장명동 행정복지센터 확대 이전, △임기 중 추진된 핵심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설명과 공유, △정읍시 인구소멸의 원인과 인구 늘리기 구상, △상동~수성동간 연결 직선도로 조기 개설 △수성동 사거리 내 악취 해결 방안으로 지역의 장명동 행정편익 등을 건의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구경찰서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10월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예정이고 법무부 산하 정읍시 준법지원센터 부지 등 추가 매입을 통해 의미있는 공간으로 먼저 만들면서 도심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앵커시설을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 주민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상동~구룡동간 2차선 확장에 대해선 칠보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 활강장의 능선 이전, 오는 2028년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인 국립정읍유금제원 등을 포함해서 칠보산 능선의 도로체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 동안 진행되거나 검토되었던 상동~구룡동 오솔길의 확장 추진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하는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윤=김영목기자

도의회 기획행정위, 의정발전자문위원 6명 위촉

행정감사·쟁점안전 등 전문 자문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염영선)는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분야별 전문가 6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의정발전자문위원은 삼농연구소 김진석 고문, 전북지방공인회 계사회 박경기 회장, 법률사무소 ‘공감’ 이미경 변호사, 전북대학교 철학과 진성수 교수, (사)미래인재교육진흥원 홍순경 이사장, 군산대학교 행정학과 황성원 교수 총 6명이다.

자문위원들은 2028년 6월까지 기획행

정위원회의 주요 쟁점안전과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비롯해 현장방문, 간담회·토론회·세미나 참여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염영선 위원장은 “자문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자문과 고견을 바탕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도의회>

道, 성장기업 12곳 발굴…지역 대표기업 키운다

29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모집
선정기업 5년간 집중 지원
융자한도 최대 7억 확대 등 혜택

전북도가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를 이끌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

도는 29일까지 2026년 유망중소기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유망중소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해 금융·경영 분

야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는 심사를 거쳐 12개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최초 공고일인 9월 14일 기준 도내에서 3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 기업에는 인증서와 환관을 수여하고 향후 5년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는 최대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 30%를 지원

하며,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료 10% 할인과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등 기업지원사업 참여 시 가산점도 부여한다.

도는 1999년부터 유망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해 지난해까지 총 534개사를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38개 기업이 신청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9일 오후 6시까지 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현

장심사와 심층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희숙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유망중소기업 선정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를 이끄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일상에서 실천하는 건강 관리 루틴

적절한 운동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



충분한 수면



밤10시~ 새벽 2시 사이
숙면을 통해 면역력 강화

체온유지

얇은 옷 여러 겹 겹쳐 입기
(스카프, 가디건 활용)



실내환기



하루 2~3회 창문 열어
공기 순환

건협전북도회, 새만금 남북3축도로 신속 건설 촉구

“이제는 정부의 책임 있는 과감한 결단 필요… 예타면제로 조기 착공하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새만금의 미래 성장과 기업투자를 뒷받침할 핵심 SOC인 새만금 남북 3축 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대규모 기업투자가 구체화되고 있고, 정부도 피지

컬 AI 분야에서 향후 3년이 글로벌 주도권 향방이 결정되는 골든타인으로 보고, 과감한 투자와 총력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1강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업투자와 산업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교통·물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며, 신속한 남북 3축 도로 건설을 위해 △국가정책적 필요성 고려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적극 검토 △기업투자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변화된 새만금의 개발 여건을 사업 타당성에 적극 반영하는 정부의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남

북 3축 도로는 필수 인프라이면서도 그동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했고,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12월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이후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예비타당성 통과’까지 고려한다면 또다시 상당 기간 사업추진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며,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와 RE100 산업단지, AI데이터센터·로봇·수소 등 미래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는 지금의 새만금 상황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으므로, 변화된 투자 여건과 국가 산업정책 등을 고려해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길이 열려야 기업이 오고, 기업이 와야 산업이 크며, 산업이 커야 국가 경쟁력과 지역이 살아난다”면서 “정부는 새만금 미래를 여는 남북 3축 도로를 최대한 신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 남북3축 도로는 총연장 21.6km, 총사업비 1조 3,942억원 규모로 새만금 3×3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핵심축으로 산업·농생명·관광지역을 연결하고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SOC와 연계하는 핵심 교통축으로서, 새만금 내부 개발과 기업투자를 뒷받침할 필수 성장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최준호 기자



지난 13일 제45차 아시아신협연합회 연차총회에서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진=신협중앙회>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아시아신협연합회장 선출

2028년까지 2년 임기 22개국 신협 연대협력 이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이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신협이 축적해 온 상생·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 신협의 공동 성장과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이끌게 됐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6 아시아신협포럼 및 아시아신협연합회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고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45차 ACCU 연차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년이다.

ACCU는 아시아지역 신협 간 우수 경영사례를 공유하고 신협운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기구다. 올해 행사에는 아시아 22개국에서 신협 관계자 571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활용, 거버넌스 및 조직혁신, 조합원 중심 경영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준호 기자

추석 과일·채소 신선도 핵심 요소는 ‘에틸렌’

농진청, 명절 농산물 보관법 안내… 사과는 다른 농산물과 분리

추석을 앞두고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과일·채소 구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농산물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려면 품목별 특성에 맞는 보관이 중요하다. 특히 온도와 수분, 과일의 숙성을 촉진하는 ‘에틸렌’이 신선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농촌진흥청은 과일과 채소는 수확 후에도 호흡을 계속하기 때문에 저온에

견디는 정도와 수분 손실 속도, 에틸렌 반응 등을 고려해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과는 다른 과일·채소와 분리하는 것이 좋다. 수확 후 에틸렌을 비교적 많이 배출해 상추와 브로콜리, 오이 등과 함께 두면 채소가 누렇게 변하거나 품질이 빨리 떨어질 수 있다. 사과는 비닐이나 밀폐용기에 넣어 0도 안팎에서 보관하면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배와 포도, 단감도 저온 보관이 좋다. 배는 상처가 있거나 지나치게 익은 열매를 먼저 골라내고 포장해 0도 안팎에 보관한다. 포도는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고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좋

다. 단감은 상온에서 쉽게 물러질 수 있어 구매 후 가능한 한 빨리 냉장 보관해야 한다.

상추와 깻잎 등 잎채소는 물기를 제거한 뒤 비닐이나 밀폐용기에 넣어 수분 손실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오이와 애호박은 저온에 민감해 냉장고의 지나치게 차가운 곳보다 채소 칸에 보관하고 가급적 빨리 소비해야 한다.

감자와 고구마, 양파 등은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 감자는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고, 고구마는 저온장해를 막기 위해 13~15도 정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 양파와 마늘은 씻지 않

은 채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명절 선물상자를 받으면 그대로 보관하지 말고 먼저 열어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처 나거나 눌린 과일과 물러진 채소는 분리해 먼저 소비해야 주변 농산물까지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농산물은 품목마다 호흡 속도와 수분 손실, 저온 반응이 다르다”며 “온도와 수분, 에틸렌 특성을 고려해 보관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고 음식물 폐기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LX,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재지정

민간 참여 5.9%→51% 사업기간 최대 1년 단축

전북혁신도시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으로 다시 지정된다. LX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지적재조사에 접목해 디지털 국토 구축과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LX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에서 지적측량업계와 지방정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사업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LX를 재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110여 년 전 종이도면

으로 작성된 지적정보의 오류와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전 국토를 정밀한 디지털 좌표로 구축하는 국가 인프라 사업이다. 토지 경계분쟁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LX가 책임수행기관 역할을 맡은 이후 민간 지적측량업계의 사업 참여가 크게 확대됐다.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도입된 2021년 9월 이후 민간업계의 지적재조사 참여율은 5.9%에서 51.0%로 높아졌다. 사업기간 역시 평균 2년에서 1~1.5년으로 단축됐다.

지적재조사 현장에도 AI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AI를 활용해 측량 기준점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적용하면서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줄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LX와 국토부는 앞으로 AI와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지적재조사에 적극 활용해 보다 정확한 국토정보를 구축하고



전북혁신도시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으로 다시 지정된다. <사진=LX>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국토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주화 LX 부사장은 “디지털 지적로의 전환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토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정읍·부안·김제시지부, 사랑의 쌀 기탁

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김순기), 부안군지부(지부장 조상완), 김제시지부(지부장 강대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4일에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정상헌)를 방문해 사랑의 쌀을 전달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쌀 전달은 추석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다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쌀은 지역 농업인이 정성껏 생산한 우리 쌀로, 정읍보호관찰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순기 지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사진=농협 정읍시지부>

전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항 해외여행객 대상 국경검역 홍보캠페인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등 차단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지역본부장 윤광일, 이하 호남지역본부)는 오는 17일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과 외래 식물병 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검역 홍보캠페인 및 대국민 청렴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캠페인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여행객 증가가 예상돼, 금지된 축산물·식물류의 반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가축전염병 및 외래 식물병해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패·공익신고 등 청렴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계획됐다.

호남지역본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과일·식물류 및 수산물 등의 반입금

지 물품에 대한 내용과 처벌 규정 등을 안내하고, 해외여행 시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남지역본부는 매일 군산항 국제여객선 터미널 1층 입국장과 2층 출국장에서 국경검역 관련 리플릿, 홍보물 등을 여행객들에게 배포하고 검역 규정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광일 호남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다녀오는 여행객들이 축산농장, 가축시장 방문 등 가축과의 접촉을 자제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육포·햄·소시지 등의 축산물이나 망고·사과·종자 등의 식물류와 같은 반입금지 품목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국민연금, 이규홍 기금이사김대순 복지이사 임명

국민연금공단이 신임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에 이규홍 후보자를, 신임 복지이사에 김대순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우)은 15일자로 이규홍 신임 기금이사와 김대순 신임 복지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8년 9월14일까지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기금이사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기금이사추천위원회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수행계약 승인을 거쳐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1966년생인 이규홍 신임 기금이사는 민간 자산운용사와 공적 연기금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자산운용 전문가다. 삼성자산운용과 DBX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현 카디안자산운용) 등에서 자산운용 및 투자 경력을 쌓았

으며 NH-Amundi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 아젠다스자산운용(현 캐피탈랜드 투자운용) 대표이사를 거쳤다. 이후 사학연금공단 CIO(자금운용관리단장)를 역임하면서 공적 연기금 운용 경험도 쌓았다.

김대순 신임 복지이사는 1999년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한 내부 전문가다. 전략경영부장과 미래혁신기획단장, 정보화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공단의 기획·혁신 및 정보화 업무를 담당해 왔다. 복지이사는 노후준비지원과 장애인지원 등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 전반을 맡는다. 공단은 김 신임 이사가 그동안 쌓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복지서비스 발굴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이사는 복지이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최준호 기자

중기부,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모집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전북지역 스타트업에도 공공기관과 협업체 기술을 검증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기술검증(PoC)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혁신 기술을 결합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스타트업에는 실제 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한 데이터 개방을 넘어 공공기관이 기술 실증무대이자 초기 수요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기부는 국가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기업, 지방의료원 등 18개 기관이 제안한 22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국가데이터처는 축제·명절 등 행사 기간 주요 지역의 인구밀집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한국도로공사는 CCTV 영상을 활용해 강우·강설 상황을 감지하고 도로살얼음에 사전 대응하는 기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들 과제를 수행할 창업기업 20개사 안팎을 선정해 기술검증과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최대 2억원,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최대 6억원 등 후속 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준호 기자

꼭 지켜야 할 교통안전 실천수칙

운전할때

안전운전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방향지시등 점등	 교통신호 준수	 음주운전 금지
 전화석 안전띠 착용	 안전모 착용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과속금지 단속중 규정속도 준수




정읍의 밤, 별빛으로 물든다 19일 ‘별나라 여행축제’ 개최

정읍의 가을 밤하늘을 별빛과 과학으로 채우는 ‘제26회 별나라 여행축제’가 오는 19일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 열린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이어진다.

축제에서는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과 천체 관측을 즐길 수 있다. 가족 방문객과 청소년을 위한 마술 공연과 과학 알아맞히기 대회도 진행한다.

천체사진가 권오철 작가의 특별강연도 열린다. 권 작가는 ‘천체사진으로 보는 우주의 경이로움’을 주제로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우주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들려줄 예정이다. 오후 8시 30분부터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천체관측 스마트폰 사진 촬영대회’가 펼쳐진다. 참가자들이 직접 밤하늘의 천체를 관측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출력하는 방식이며 다양한 상품도 준비된다.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은 2014년에 완공된 과학관으로 날씨와 우주 과학을 함께 다루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기상·천문 체험을 통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우주와 천문학을 친숙하게 접하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키우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 ‘피지컬 AI’ 거점 도약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식품산업의 피지컬 인공지능(AI) 전환을 이끌 핵심 과제 구체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다함께 미래로 피지컬AI 추진단 식품분과’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식품 분야 피지컬 AI 도입과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분과장인 이혜정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비롯해 정성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AI응용연구센터장, 하림푸드·천일식품 등 산업체 관계자를 포함한 식품·AI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석했다. 지난 8월 하상으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는 대면과 화상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사전에 각자 제안한 사업을 바탕으로 △식품 분야 피지컬 AI 도입을 위한 핵심과제 △식품 피지컬 AI 거점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 및 추진 로드맵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단기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박갑수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위원들이 제안한 과제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피지컬 AI 도입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민·관·학·연의 협력을 바탕으로 익산이 대한민국 식품 분야 피지컬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제 운영

군산시는 가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를 운영한다.

집중 신고 대상은 가을철 재난·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소방안전, 축제·행사 등 4개 분야다.

시민들은 주변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담당 부서의 확인을 거쳐 조치되며, 특히 집중 신고 기간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접수될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작은 위험요소 하나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큰 사고를 예방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가을철 축제와 행사,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주변의 위험요소를 꼼꼼히 살펴 안전신문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목천포천’ 대대적 정비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선정…총사업비 369억 들여 재해 대응력 강화

익산시가 목천포천 일원의 하천과 배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남부권과 도심을 아우르는 재해 대응력을 한층 높인다.

익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7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서 ‘목천포천 지구’가 신규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국비 184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69억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목천포천 하천 정비와 목천배수장 증설, 소고량 2개소 재설치 등 종합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목천포천은 만경강과 연결돼 있고 상류 도심에서 유입되는 우수까지 처리하는 만큼 남부권의 원활한 배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하류에 위치한 목천배수장은 1988년 설치돼 시설 개선과 배수 능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천과 배수장을 함께 정비하면 목천포천 일원의 배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상류 도심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 평화동 일원을 비롯한 도심의 재해 위험을 낮추는 근본적 차단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은 익산시가 추진해 온 재해 예방사업의 연장선이다.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수피해방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예방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목천포천 지구의 경우 지난해 10월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올해 1월 행정예고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구체화하며 행정안전부 공모에 대비해 왔다.

시는 앞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하천과 배수시설을 연계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도시의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송석민 익산시 건설과장은 “이번 사업은 목천포천 일대의 배수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남부권과 도심의 재해 대응력을 함께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전 본격화

김재준 시장, 예결위 핵심 인사들에 사업 적극 건의

군 5년간 최대였던 2026년 국가예산 최종 확정액 1조 2,747억 원보다도 많은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김 시장은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를 만나 정부안에 반영된 군산시 주요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없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 조성, 로봏부품 클러스터 상생형 임대공장, K-로봏 피지컬 AI 실증공유센터,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으로 사업별 필요성과 국비 추가 반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진성준 국방위원장에게 국가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군 작전성 협의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국방안보·에너지 안보의 조화와 공존방안을 마

련하고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된 만큼, 신항만의 적기 조성과 항로 준설 사업 예산의 안정적 인 국비 반영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신항만이 군산의 새로운 성장거점이자 물류 중심으로 조기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용후배터리 순환이용 지원센터, 근대문화 비엔날레, 미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등 소관별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재준 시장은 “정부안에 1조 3,010억원이 반영된 성과를 발판으로, 국회 단계에서 핵심사업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군산에 찾아온 성장의 기회를 확실히 살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한 발 더 뛰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추석 명절 준비 상황 점검 철저히

읍면동장 소통회의서 민생-재난안전까지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생활 민원 처리와 지역별 현안, 명절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도로 환경과 쓰레기, 교통·안전 관리뿐 아니라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히 살피도록 했다.

시는 지난 11일 이학수 시장 주재로 ‘내장산골프&리조트’에서 읍면동장 소통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23개 읍면동장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각 읍면동은 생활 민원 처리 실적과 현재 상황, 추석 준비 사항, 주민 여론, 우수 사례, 건의 사항과 현장의 어려움을 보

고했다. 이어 지역별 주요 과제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논의했다.

이 시장은 추석 시민 생활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도로면 환경정비와 쓰레기 처리, 교통·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꼼꼼히 점검하도록 했다.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도 세심하게 살펴 명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당부했다.

이달부터 읍면동민의 날 등 지역 행사가 이어지는 만큼 행사장과 분야별 안전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생활 민원은 현장에서 먼저 찾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뒤에도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는지 살피도록 했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사진=정읍시>

민원이나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안은 관련 부서와 협력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주민의 작은 불편과 목소리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필요한 일을 한발 앞서 챙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산단 구조고도화’ 산업부 장관상

공공투자 분야 전국 최우수

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산시가 산업단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산단복합문화센터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14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어워드’ 공공투자 산단 복합문화센터 부문 최우수상(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산업단지 내 부족했던 문화·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조성해 산업단지를 일하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군산 산단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98억 원(국비 33억, 도비 10억, 시비 55억)을 투입해 군산3출강 산업단지 내에 조성됐다. 지상 3층, 연면적 3,019 규모로 2023년 10월 준공했으며, 2024년 9월부터 본격

특히 군산 시내에서 약 25km 떨어진 산업단지의 지리적 특성상 그동안 문화·체육·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근로자와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산단 근로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그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산업단지에서 근로자와 주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머무를 수 있는 문화와 생활공간을 만들어 온 노력을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산 산업단지가 기업과 근로자, 시민 모두에게 친숙하고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활력 넘치는 산업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손진영 의원, 생활폐기물 노동환경 점검

익산시 3개 대행업체 방문

살폈다. 특히 서류나 보고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노동자 휴게공간, 샤워 시설, 체력단련 시설 등 현장의 실제 여건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

손 의원의 이번 방문은 그동안 제기해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노동환경과 익산시의 관리·감독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실제 노동환경의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손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업무인 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휴식 여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사항을 바탕으로 15일 관련 시정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명절 맞아 상수도 특별 대책 추진

24~27일 비상대책반 가동

비상 급수용 병물 비치 상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군산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섬(도사) 지역 주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물 걱정 없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상수도 종합 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군산시는 관내 도서지역(관리도, 비안도 등)에 설치된 해수담수화 시설과 배수지 및 급수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 연휴 기간 섬을 방문하는 귀성객 등으로 수도통 사용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단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해수담수화시설의 필터 교체 및 전기시설 점검을 비롯해 수용가 수질 상태,

아울러 군산시는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시내 및 도서 지역의 단수, 출수 불량 등 각종 상수도 관련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상수도 비상대책반’을 본격 가동한다.

비상대책반은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수도과장을 포함한 직원 20명을 4개 반으로 편성해 운영하며, 5개 상수도 대행업체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과 모든 시민들이 불편 없는 평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 교육

공직자 122명 참여

2부에서는 청렴 규정을 주제로 한 문제 풀이 game 진행됐다. 공직자가 지켜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실제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익히는 방식이다. 모두 20개 팀이 참여해 문제를 풀었다.

경기 결과 최우수팀과 우수팀, 장려팀을 선정했다. 각 팀에는 은누리상품권을 상품으로 지급했으며 최우수팀은 40만 원, 우수팀은 30만 원, 장려팀은 20만 원을 받았다.

1부 소통·공감 대화에서는 젊은 세대 신규 직원이 늘면서 생기는 세대 차이와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다뤘다. 이학수 시장은 현장에서 익명으로 받은 질문에도 직접 답하며 직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읍=김정인 기자

남원시, 시민 안전·편의 ‘만전’ 2(題)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남원시는 다가오는 2026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난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선제적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명절 기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3개소, 대형마트 3개소, 총 6개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남원시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점검으로 추진됐으며, 안전관리자문단과 관계 유관기관이 참여해 전기·가스·소방·시설 분야 전반에 걸쳐 관련 법

령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화재 발생 위험 요인, 가스 누출 가능성, 전기 설비 이상 여부 등 명절 기간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 가운데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비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명절 동안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즉각적인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6곳 전면 무료 개방

남원시가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관내 유료공

영주차장을 전면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고향 방문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은 시청 주차장(171면), 도동지구 주차타워(258면), 시장4가 주차장(69면), 구 군청 주차장(95면), 관왕묘 옆 주차장(52면), 시외버스터미널 옆 주차장(117면) 등 총 6개소이다.

기존 유료공영주차장 정기권 사용자에게는 무료 개방

기간 4일을 일할 계산한 요금 할인 혜택이 9월에 적용된다.

또한, 주차장 입구 현수막 게시, 공식 SNS 및 홈페이지 공지,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을 홍보하고 남원시 교통정보 앱으로 주차 잔여 면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만족도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주차 서비스 개선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청렴도 하락 보조금 ‘정조준’…개선 총력

외부체감도 전년보다3.7점 하락 보조금 선정·추진과정 공개 강화

순창군은 14일 기관장 주재로 '2026년 제3회 청렴정책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한 반부패·청렴정책의 이행상황과 주요 성과를 최종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조광희 부군수, 국·실·과·소장 및 읍·면장 등 37명이 참석해 2026년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와 핵심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향후 보완 및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순창군은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체감도가 전년보다 3.7점 하락하고, 보조금 지원 분야의 부패경험률이 2024년 0%에서 2025년 5.56%로 증가한 점에 주목해 보조금 분야를 핵심 부패취약분야로 선정하고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에 따라 기관장 주도로 '발굴 - 실행 - 점검 - 환류'의 청렴정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청렴정책회의와 청



<사진=순창군>

렴시민감사관 등 내·외부 의견을 반영해 보조금 분야의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1부서 1보조금 1청렴시책'을 추진해 부서별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진단하고 업무 특성에 맞는 청렴시책을 발굴했다.

그 결과 각 부서는 업무 특성에 맞는 청렴시책을 마련했으며, 청렴 자가확인 체크박스 도입, 보조사업 선정 및 추진과정 공개, 선정 결과 안내 등 주민이 보다 쉽게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

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순창군은 올해 군수 주재 청렴정책회의를 총 3회 운영하고,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청렴정책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관장의 청렴 의지를 지속적인 실행체계로 정착시켰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조금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야생·로컬 ‘업그レード’

내달 2일 개막…콘텐츠 강화 지역 먹거리 50여 종 선봘

완주군 대표축제인 제14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불 타오르는 거친 야생’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올해 축제에는 청정 자연속에서 즐기는 와일드한 야생 체험과 건강한 지역 먹거리라는 축제 본연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관광수요를 반영한 신규 콘텐츠와 방문객 혜택 확대에 중점을 뒀다.

고산자연휴양림이라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맨손 물고기 잡기와 불타는 화

덕존, 리틀와푸족, 트리아스트림 등 기존 대표 프로그램은 물론 새로운 콘텐츠도 선보인다.

와일드놀이터는 벚꽃미끄럼틀과 흙놀이터 등 자연소재를 활용한 무동력 자연놀이터로 탈바꿈하며, 리얼 폐차 부수기와 스트릿 아트 그래피티는 축제장을 방문한 어른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3일 80만 유튜브 정유왕과 함께하는 와일드캣! 한돈 라이브(LIVE) 해체소 또한 완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지역 농특산물과 먹거리를 활용한 로컬푸드 콘텐츠도 강화됐다.

13개 읍면 부녀회가 참여하는 로컬밥

상은 지역 대학인 우석대학교와 컨설팅을 통해 새롭게 개발한 50여 종의 메뉴와 음식 스토리텔링으로 지역 먹거리 문화를 보여주고,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로컬장터도 로컬푸드 1번지 완주의 위상에 맞게 한층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방문객의 실질적인 혜택과 축제장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축제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 할인된 상품권으로 축제장의 먹거리, 체험, 농특산물 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방문객의 부담은 낮추는 동시에 축제 소비가 주민과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모색한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성공’ 지역기관 협력 안전망 구축

완주군이 최근 ‘2026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자살예방사업 추진 성과와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군은 심리적 위기를 겪는 고위험군 주민을 조기에 찾아내 필요한 복지·의료 혜택을 신속하게 잇는 지역사회 밀착형 자살 예방 안전망을 다져왔다.

특히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상담·치료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계 기관 간 협력망 강화,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을 선제적으로 펼치며 농촌과 산단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에 걸맞은 맞춤형 예방 정책을 정착시켰다.

또한, 마을·읍면·학교·경로당·의료기관·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생명지킴이를 적극 양성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살예방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이달부터 ‘그냥드림’…복지사각지대 해소

매주 화목 오후 2~5시 운영 먹거리 등 별도 심사없이 지원

순창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이달부터 ‘그냥드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냥드림사업’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복잡한 자격 심사 없이 필요한 먹거리와 기본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의 결식을 예방하는 한편, 도움

이 필요하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숨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 이용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매주 화·목 오후 2시~5시 순창군 가족센터 1층에 마련된 사업장을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서 신분 확인과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식료품과 생필품 등 3~5개 품목으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사업이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화장품 ‘춘향미인’ 추석맞이 이벤트 선봘

지역 3개사 제품 선물세트 구성 뽐기 이벤트·무료배송 등 운영

재단법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1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고죽점 내 남원 화장품 판매장 ‘춘향미인’에서 추석맞이 선물세트 판매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화장품기업의 우수 제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명절 선물 수요와 연계해 입점기업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선물세트는 춘향미인에 입점한 남원지역 화장품기업 5개사 가운데 윈스킨화장품, 한미화장품, 하이솔 등 3개사의 제품을 활용

해 구성됐다.

소비자의 예산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실속형, 기본형, 프리미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마련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는 선물세트 판매와 함께 구매 고객 뽐기 이벤트, 명절 택배 무료배송 서비스 등 고객 참여 이벤트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세부 행사 내용은 판매장 운영 여건과 입점기업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매장 내 홍보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화장품기업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장류축제 ‘글로벌 K-POP 가요제’ 개최

순창군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열리는 제21회 순창장류축제 특별프로그램으로 ‘순창 글로벌 K-POP가요제’를 개최한다.

순창장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2026 문화관광축제 중 예비글로벌축제로 선정되면서 ‘예비글로벌축제’라는 이름을 달고 치르는 첫해인 만큼, K-POP을 장류축제와 접목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방한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

참가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거나 방문 중인 외국인으로, 국적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국내 외국인가요제 수상 경력에 있는 경우는 참가할 수 없다.

참가 부문은 K-POP 부문, 나의 인생곡 부문(성인가요), 순창 창작곡 부문 세 갈래로 나뉘며, 개인은 물론 팀 단위로도 참가할 수 있어 외국인 커뮤니티나 유학생 동아리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순창=박지현 기자

혼불문학관, 완간 30주년 기념 북토크·연주회 펼쳐

남원시가 소설 ‘혼불’ 완간 30주년을 맞아 문학과 사람, 음악으로 ‘혼불’의 가치를 다시 만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다.

남원시는 오는 19일 혼불문학관에서 혼불 완간 30주년 기념행사 ‘혼불, 기억의 연주’를 개최한다.

2026년 국립한국문학관 지역문학관 활성화 및 협력지원사업으로 남원시가 선정돼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혼불’과故 최명희 작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문학과 음악을 더해 작품이 남긴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의 문은 정이현 소설가와 함께하는 북토크가 연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진행되는 문학나눔 북토크에서는 정이현 작가의 ‘노 피플 존’을 중심으로, 강지희 평론가가 사회를 맡아 관객과 작가의 대화를 이끈다.

이어 오후 4시에는故 최명희 작가와 ‘혼불’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인타부 영상이 상영된다.

영상에는故 최명희 작가의 오랜 친구인 이영립 작가,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함께 수상한 김병중 작가, 그리고 혼불의 배경지인 남원시 사매면에서 평생을 살아온 최정현 어르신이 참여한다.

행사의 마지막은 오후 5시 김성수 재즈피아니스트의 아와음악공연이 장식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역 청소년들도 ‘혼불’의 기억을 잇는 데 함께한다. 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상 촬영에 참여해 제작한 영상이 행사 시간 동안 혼불문학관에서 상시 상영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장애인합창단 ‘꽃’ 전북장애인합창제 대상 수상

완주문화관광재단 완주장애인합창단 ‘꽃’이 지난 10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열린 제9회 전북장애인합창제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9회 전북장애인합창제는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 전북협회가 주최하고, (사)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이 주관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한 행사이다.

완주문화관광재단 완주장애인합창단 ‘꽃’은 2023년 창단해 현재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민경 작곡, 김삼미 작사의 창작곡 ‘좋아좋아’를 선보였다. 완주군 내 장애인 복지기관인 다예공동체, 새싹원, 예수재활원, 은혜의동산, 한사람이 함께하는 합창단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는 완주군 최초의 장애인 합창단이다.

완주장애인합창단 ‘꽃’은 오는 9월 말에는 도쿄국제합창콩쿠르 참가후원위가 주최하는 장애인 합창단 초청 음악회에 초청받아 부산시민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조경수산업 현대화 ‘박차’ 첨단시설 재배단지 견학

완주군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완주조경수협동조합과 소양철쭉영농조합 조합원 54명을 대상으로 충북 청주와 옥천, 세종, 전북 정읍 일원의 지능형(스마트) 재배 현장을 둘러보는 ‘조경수유통센터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

완주조경수유통센터(이사장 강상희)가 주관한 이번 현장 견학은 지난달 열린 ‘조경수 농가 활성화 추진 간담회’에서 다룬 생산 체계 현대화 방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지능형 온실과 임업형 태양광 시설, 특용수 재배단지를 차례로 둘러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첨단 재배 기술과 고부가가치 특용수 관리 비결을 살폈다.

참가자들은 노지 중심의 기존 재배 방식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며, 현장에서 익힌 최신 기술과 재배 방식을 완주군 조경수 농가 실정에 맞춰 도입하고 확산하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현장에서 얻은 경험은 완주 조경수 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추석 연휴 환경오염 특별점검

폐수 무단방류 등 점검·순찰 취약사업장 기술지원도 병행

순창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과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8일까지 ‘환경오염 예방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연휴 전후로 단속의 사각지대를 노린 폐수 무단 방류,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불법행

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큰 사업장과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주요 시설들이다.

특히 군은 수질오염에 민감한 주요 상수원 수계 지역과 인근 농공단지 주변 하천을 중심으로 순찰 노선을 편성해 집중적인 예찰 및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단속 위주의 행정에 그치지 않고 환경관리 지원도 병

행한다. 환경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연휴 동안 장기간 가동을 중단하여 연휴 이후 오염물질 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을 발굴하고, 사전 기술지원을 제공해 연휴 종료 후 정상 가동이 이루어지도록 도움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각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에서도 자체적인 사전 자율점검을 통해 배출·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익산 이리남성여고 학생들이 축제 수익금으로 이웃사랑 실천

추석을 앞두고 익산 청소년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나섰다.

익산시 영등1동은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14일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학생들이 학교 행사인 '라일락 축제'에서 먹거리와 체원 부스를 운영해 마련한 수익금이다. 학생들은 축제의 즐거움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으로 이어가고자 성금을 영등1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영등1동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사업과 후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권영택 영등1동장은 "학생들이 축제를 통해 직접 마련한 소중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리남성여고 학생들은 학교 축제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기부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무주제일건재, 어려운 이웃에 김 4백 박스 기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는 온정이 무주군에 줄을 잇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14일 무주제일건재가 630만 원 상당의 김 4백 박스를 기부했다.

이승훈 무주제일건재 대표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다는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맛있는 김과 함께 드시는 밤 한술이 어려운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제일건재는 무주군 무주읍에 소재한 건축 및 안전, 환경 용품 전문 업체로 매년 명절 때마다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농협 임직원, 장수군에 기부금 1310만원 기탁

농심전심 운동 실천

장수군은 지난 11일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지부장 정현주)가 제20회 장수 한우량사과랑 축제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금 1,310만 원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농협·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심전심 운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기탁식에는 김연순 농협 기업플랫폼부장과 김준오 임베디드금융국장을 비롯해 장수 출신 임직원과 농협 기업플랫폼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향과 농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농협 임직원들이 2023년부터 장수군에 기탁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5,395만 원에 달한다.

농협은 지속적인 기부와 교류를 통해 장수군과 끈끈한 연대를 이어가며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기탁식에 앞서 농협 기업플랫폼부 임직원들은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의 사과 농가를 찾아 수확 작업을 도왔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은 지난 11일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가 제20회 장수 한우량사과랑 축제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금 1,310만 원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장수군>

한전 서울본부 임직원들, 남원시에 성금 1000만원 전달

지역사회에 힘 보태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임직원 100명이 남원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했다.

남원시는 14일 시장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와 서울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갖고 1천만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았다.

이번 기부는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임직원 100명이 각각 10만원

씩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전 남원지사와 남원시의 고향사랑기부 관련 소통과 홍보가 임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다.

남원시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 현안 해결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300명에 식사 나눔

김제시는 김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노기보)가 14일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사)밀알중앙회 전북지구 김제지회와 중식당 하우치가 함께한 짜장면 무료 식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하고, 지역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나눔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어르신 등 200

여 명이 행사에 참여해 짜장면과 만두를 함께 제공했다.

중식당 하우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짜장면과 만두를 준비했으며, 복지관 조리실에서 당일 면을 삶아 따뜻한 짜장면을 배식했다.

(사)밀알중앙회 전북지구 김제지회 회원들도 봉사자로 참여해 음식 준비와 배식 등을 도우며 어르신들과 함께한 시간을 가졌다.

/김제=온봉기 기자



정읍 학생 위한 장학금 잇따라 기탁

(주)빅컴 김승겸 총감독과 서지말 티엠에프영농조합법인(대표 이정기)이 정읍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며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정읍 출신인 김 총감독은 지난 11일 정읍시청을 찾아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그는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행사·홍보 종합대행사(주)빅컴의 총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총감독은 "고향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지말티엠에프영농조합법인도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 법인은 신태인농공단지에서 축산 배합사료를 제조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 두꺼비회관 백산면에 설령탕 300그릇 기탁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14일 두꺼비회관에서 관내 어르신 및 저소득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정성껏 준비한 설령탕 300그릇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환절기를 맞아 지역 내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과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챙기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준비된 설령탕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맞춤형복지팀이 직접 포장 작업에 같이 참여해 이웃사랑에 온기를 더했다. 또한 협의체 위원들과 마을 이장들이 직접 설령탕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면서 꼼꼼히 안부를 살피고 환절기 건강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두꺼비회관 박옥진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이웃들이 정성 가득한 설령탕 한 그릇을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온정을 나누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최선 완주 고산귀농귀촌지회장 교육용 미니로봇 후원

최선 완주군귀농귀촌협의회 고산지회장이 고산면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산초등학교와 삼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교육용 소형 로봇을 각 1대씩, 총 2대를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농촌 지역 아이들이 로봇 기술을 활용한 다채로운 놀이와 학습 활동을 접하며 창의력과 과학적 탐구심을 키우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전달된 교육용 미니로봇 알파미니는 아이들과 대화하고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 등 놀이와 학습에 활용할 수 있어 각 병설유치원의 교육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선 고산지회장은 "아이들이 로봇과 함께 즐겁게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일상속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01

**적당한
냉방/난방 온도
유지하기**

02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 장바구니
사용 하기**

03

**걸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一事一言〉



아이 울음소리 끊긴 농어촌, 보육 사각지대 방치할 것인가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도심과 농어촌 간
보육 인프라 격차 심화...

지방소멸과 저출생의 거센 파도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농어촌 지역의 보육 환경이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주·익산·군산 등 주요 도심권을 제외한 도내 8개 군 지역의 보육 인프라 사각지대는 이미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원생 감소로 인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연쇄 폐원, 신규 교사 유입 중단에 따른 인력난, 그리고 주말과 야간 시간대의 돌봄 공백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토양에서 청년 유입이나 지역 균형발전을 논하는 것은 허망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현재 도내 농어촌 보육 현황은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다. 영유아 수가 줄어들자 민간 보육 시설은 경영난을 겪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으며, 그나마 남아 있는 국공립 시설조차 넓은 관할 구역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이로 인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은 기본적인 보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더욱이 농번기나 야간·주말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틈새 돌봄’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기 짝이 없다. 보육 환경의 양극화가 어느 지역에 사는

냐에 따라 아이들의 생애 초기 돌봄 권리마저 차별받는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력의 공급 차단이다. 열악한 처우와 과도한 업무 강도, 지역적 거부감으로 인해 신규 보육교사들이 농어촌 취업을 외면하면서 기존 현장의 교사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의 피로 누적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아동 방임이나 관리 부실이라는 또 다른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사법적 전과 조회 수준에 그치는 허술한 교사 검증 체계 역시 농어촌 보육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이다. 인구 감소가 시설 폐쇄로 이어지고, 보육 공백이 다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잔혹한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전북 농어촌의 미래는 없다.

공공 돌봄 거점 확대·재정 투입해
농어촌 돌봄 공백 메워야

그동안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저출생 극복을 외치며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상당수 정책은 보여주기가식 출신축하금 지급이나 단발성 공모 사업에 치중되어 왔다. 아이를 낳았을 때 주는 일회성 수당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라는 내내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줄 수 있다는 ‘체감형 보육 안전망’이다. 시혜성 예산 투입을 넘어, 농어촌 보육 현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감한 행

정적 결단과 정책적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우선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읍·면 단위의 거점형 공공 돌봄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야간·주말·농번기 ‘SOS 틈새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히 시설 수만 유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 이동 지원 및 거점 시설을 묶는 순회 돌봄 차량 운영 등 농어촌 맞춤형 신교통·보육 연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농어촌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현장 인력에 대한 과감한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우수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농어촌에 아이들을 다시 불러모으고 청년층을 정착시키는 유일한 길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정과 교육당국은 더 이상 농어촌 돌봄 공백을 개별 가정의 고통으로 방치하지 말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농어촌의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농어촌 보육 환경 전반을 개혁하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ㅣ 독자투고 ㅣ

보이스피싱, 당신의 방심을 노린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처럼 단순히 불법 대출 다수에 게 전화해 기관을 사칭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족의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정교하게 설계된 시나리오로 다가오는 등 수법이 진화하면서 누구라도 순간의 방심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는 대출 상환형 피싱이나, 자녀를

사칭해 메신저로 급전을 요구하는 부모대상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강제로 제어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범죄 조직으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전화 뺨돌림’ 수법은 피해를 더욱 키우는 주범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원칙은 단 하나, ‘일단 의심하고, 확인하고, 끊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도 전화 상으로 현금 봉투 전달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 이체,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웹주소(URL)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되며, 자녀나 지인에게 급한 돈 요구가 올 경우 반드시 직접 전화 통화를 거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속아서 돈을 입금했거나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경찰청(112)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일상의 평온까지 송두리째 흔드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바탕으로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김제경찰서 신봉지구대 경위 김현

사 설

이성운이 짙은 현대차 9조 투자, 정부가 책임져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가 전북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전환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성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적절하고 당연한 요구다.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박수칠 때는 지났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약속된 투자를 얼마나 신속하고 온전하게 현실로 만들어 내느냐다.

이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을 ‘기회의 땅’이라고 강조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현대차의 9조원 투자가 대통령 임기 내 완성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가 선정과 새만금 남북3축도로 조기 착공, 피지컬 AI 산업 지원까지 함께 요구했다. 전북의 현안을 국정의 중시 무대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여당 의원이 정부를 향해 전북의 몫을 분명하게 요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역 국회의원의 책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이 소외되거나 정부 지원이 미흡할 때는 같은 당 정부라도 당당하게 따지고 관철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의원의 이번 대정부질문은 전북 정치권이 어떤 자세를 가

져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는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수소, 재생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9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성공하면 새만금의 산업 지도를 넘어 전북 경제의 체질까지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현대차 투자 지원을 위한 새만금 임대용지 조성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당초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정착 기반시설 부담을 전북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현대차 투자를 기업과 전북만의 사업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전력과 용수, 도로와 항만, 부지와 인허가 등 필요한 기반을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 전북 정치권도 이성운 의원의 문제 제기를 개인의 목소리로 남겨두서는 안 된다. 여야와 지역구를 넘어 하나의 목소리로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

9조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기업이 몰려오며 전북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어져야 진짜 투자다. 이성운 의원이 던진 요구에 정부가 이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새만금을 진정한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다.

▲오늘의시

준비 없는 희망 / 박노해

준비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처절한 정진으로
자기를 갈고 닦아

저 거대한 세력을
기어코 뛰어넘을
진정한 자기 실력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없는 준비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해 가는데
세상과 자기를
머릿속에 고정시켜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98년 특별 사면으로 출소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간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8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새로운 도약, 전북과 함께 합니다!

JBT 전북타임스

전북의 참 목소리, 정직한 언론

전북의 꿈과 희망! 전북타임스와 함께 하십시오!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times.co.kr>

구독, 광고문의 :063)282-9600~3



정읍소방서가 걸어온 안전의 발걸음!

진정한 공감·선제적 예방·신속한 대응

1. 최고의 119서비스로 안전하고 행복한 정읍 구현

2026년 현재 정읍소방서는 2과 1단, 5개 119안전센터와 1개 구조대, 소방공무원 232명, 의용소방대원 745명, 소방차량 37대를 운영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상일 서장은 '진정한 공감, 선제적 예방, 신속한 대응'을 복무방침으로 정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 행정과 예방 중심의 소방정책,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 시민 안전지킴이 정읍소방, 상반기에도 힘 있는 119 출동

2026년 상반기(6월 30일 기준) 정읍소방서는 화재 90건, 구조 844건, 구급 5,148건, 생활안전 467건 등 총 6,549건의 소방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다.

크고 작은 재난 현장에서 119는 24시간 시민 곁을 지키며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화재는 물론 구조·구급·생활안전 분야까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출동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더 빠르고 더 안전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고층 아파트와 대형 공장, 축사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적응훈련을 확대하고 있으며, 재난현장 지휘 훈련과 다수 사상자 대응훈련, 수난구조훈련 등을 통해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반복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불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확충,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등 초기 대응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4. 시민에게 더 가까운 구조·구급서비스

산악과 수난사고를 비롯한 각종 재난 현장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대원 전문교육과 현장 중심 훈련을 강화하고, 구조장비 점검과 펌프구조대 운영 등 구조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아울러 대설·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과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급 분야에서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와 팀워크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병원과 연계한 전문교육을 통해 구급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119안심콜 서비스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홍보 등 응급의료 안전

망을 강화하며 시민이 신뢰하는 119구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5. 사고보다 먼저 움직이는 예방행정
정읍소방서는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계절별·대상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함께 노후아파트, 위험물시설, 특수가연물 취급공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소방안전물품 지원과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등 생활밀착형 안전정책도 확대했다.

6.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안전은 올바른 교육에서 시작된다는 신념 아래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장애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문화가족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체험행사와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또한 언론과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정책홍보로 시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7. 전문성과 노력으로 이어진 우수 성과

정읍소방서는 상반기 동안 소방기술 경연대회 구급 분야 수상, 하트세이버와 브레인세이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수상, 소방동요대회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꾸준한 교육과 훈련,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 시민과 가장 가까운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

37개 대 745명의 정읍의용소방대는 화재예방 순찰과 취약계층 지원, 폭염 안전지킴이 활동, 지역축제 안전지원, 화재피해 주민 복구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여름에는 폭염 취약 시간대 생수 나눔과 온열질환 예방 홍보를 실시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9. 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이상일 정읍소방서장은 "안전은 시민과 소방이 함께 만들어 가는 가치입니다. 정읍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재난을 미리 예방하며,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달려가는 믿음직한 119가 되겠습니다"라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진안고원
JINAN GOWON

2026 JINAN RED GINSENG FESTIVAL

진안홍삼축제

2026. 9.18.~20.일
진안 마이산 북부 일원



축하공연 라인업

9.17 (목) 21시 전야제

장소:진안고원시장 천막
진안홍삼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사전행사 '홍삼빛 낙화놀이'

9.18 (금) 18시 개막공연

에일리, 데이브레이크

9.19 (토) 18시

레드에너지 페스타

국카스텐, HYNN(박해원), 찬(Chan), 환희

9.20 (일) 17시

제10회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

심수봉, 이찬원, 장민호, 김다현, 윤수현, 미스김

주요 프로그램

함께가서 더 즐거운 공연!

캐치 티니핑 싱어롱쇼, 홍삼빛 낙화놀이(전야제), 홍삼가족공연(마술,벌룬,버블)

온가족 참여형, 다채로운 체험

홍삼바비큐, 홍삼한상, 홍삼명인교실, 홍삼각두기담그기, 홍삼 파워존, 홍삼떡볶이 나눔(with 두끼떡볶이) 마을에서 놀자, 홍삼에너지 충전

머물수록 즐거운 홍삼축제!

정통한 주제관, 홍삼 키즈존, 홍삼 웰니스타임, 축약체험 등